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일시 : 2019. 4. 29. (월)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공동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

후원 :  여성가족부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세 부 일 정

일 시	발 표 및 내 용
14:30~15:00	등 록
15:00~15:20	❖ 사 회 :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 개회사 :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5:20~16:00	❖ 주제발표 1 :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 김선영 (흑석초등학교 교사/한국청소년남서울연맹 아람연합회장) ❖ 주제발표 2: 바람결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6:00~16:10	휴 식
16:10~16:50	❖ 좌 장 :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토론 1 : 안병일 (서울시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 회장/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 토론 2 : 김정울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 토론 3 : 김경옥 (민들레 대표) ❖ 토론 4 : 임유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기획평가부장)
16:50~17:30	종 합 토 론
17:30~	폐 회

차례

발표1

- >>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 1
| 김선영 (흑석초등학교 교사/한국청소년서울연맹 아람연합회장)

발표2

- >> 버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19
|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토론1

- >>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NGO활동의 기대효과..... 37
| 안병일 (서울시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 회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토론2

- >>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45
|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토론3

- >> 버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에 대한 토론문..... 55
| 김경옥 (민들레 대표)

토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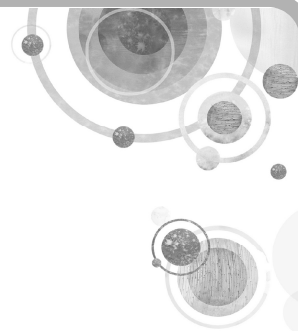
- >> 버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학교교육 혁신의 방향과 청소년단체 활동의 변화..... 59
| 임유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기획평가부장)

발표1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

김 선 영

(흑석초등학교 교사/한국청소년서울연맹 아람연합회장)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방안

서울흑석초등학교
아람연합회장 김선영

KOREA YOUTH ASSOCIATION

교직경력 21년차
부장교사경력 12년차
청소년단체경력 21년차
임원경력 10년차

KOREA YOUTH ASSOCIATION

청소년단체의 현재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
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지역대로 이
관하도록 노력한다.**

KOREA YOUTH ASSOCIATION

교원의 자율성에 기반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자율동아리 중심의
운영을 권장함

발표자의 개인적 분석

- 1)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교조 및 서울교사노조는 이면합의를 하여 청소년단체를 탈학교 시키기 위하여 협조하고 있음.
- 2) 민주주의 시대에 교육청이 업무분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동임.
- 3) 탈학교는 입법예고 혹은 청소년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5년 ~ 10년 점진적으로 탈학교를 추진해야 함.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seouleducation.sen.go.kr ▼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교육감 공약 교육감 동경 **시민·학생 청원**

시민 청원게시판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참된 교육”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활동 업무
분장 제외에 대한 일방적인 이행을 즉
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참여인원 : [10,587명]



**청소년단체 탈학교
및 업무분장 제외
를 반대하는 이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청소년단체활동의 학교폭력 예방효과
를 중심으로
연구:강동구송파구중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자문: 김은하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효과성 분석 59쪽 인용) 청소년단
체활동에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사
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아탄력
성이 높으며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
위요인인 문제해결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효과성 분석) 60쪽 인용 청소년단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은 신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중략) 청소년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가해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성 분석 60쪽 인용) 청소년단체활동에 만족할수록 관계형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중략) 청소년단체활동에 **만족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가해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효과성분석 67쪽 인용) 청소년단체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적응, 자존감, 공감, 자아탄력성** 같은 특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단체활동이
올바른 인성함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

청소년단체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많
은 도움이 된다.

청소년단체활동이
부적응 학생 적응
활동에 많은 도움
이 된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일부교원의 설문은
실시였으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의
견 배제

교육의 주인은 교
사가 아니라 학생
입니다. 학생의 학
습권과 선택권도
중요

청소년단체의 선택
은 학생이 합니다.
탈학교는 학생의
기회조차 없음

FOREAYOUTHASSOCIATION

청소년단체의 미래
와 활성화 방안

KOREA YOUTH ASSOCIATION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가산점
제도를 부활함.

2021. 2. 28.까지 선택가산점
부여

2022학년도 부터는 폐지함.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 낮음

KOREA YOUTH ASSOCIATION

청소년단체 지도교원의 업무의 대
부분을 연맹으로 이관한다.

- 1)모집은 **학교**에서 처리
- 2)참가비이체 **연맹**에서 처리
- 3)참가비 미납안내 **연맹**에서 처리
- 4)행사 공지 **연맹**에서 처리
- 5)불참자 처리 **연맹**에서 처리
- 6)준비물 안내 **연맹**에서 실시함

KOREA YOUTH ASSOCIATION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지도비 현실화

- 1) 영재교육 4시간 지도 23만원
- 2) 청소년단체 8시간 지도 6만원
(학교에 따라 상이함)
- 3) 최저시급 1시간 8,350원
- 4) 청소년단체 10시간 지도시
83,500원

시간외 초과근무 수당

*19호봉 이하

10,872*4시간=43,488원

10,872*12시간=130,464원

*20~29호봉 12,076*4시간=48,304원

12,076*12시간=144,912원

*30호봉 이상

12,964*4시간=51,856원

12,964원*12시간=155,568원

KOREA YOUTH ASSOCIATION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인재풀 구성

- 1) 청소년단체 지도를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인재풀을 구성한다.
- 2) 교원의 자율성에 기반해 운영되므로 당연히 희망하지 않는 교원은 제외한다.

KOREA YOUTH ASSOCIATION

청소년단체 거점학교 운영
흑석초에 지도교사가 있
고 남부초와 인헌초에는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
흑석초가 중심이 되어 활
동을 진행함

청소년단체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제10조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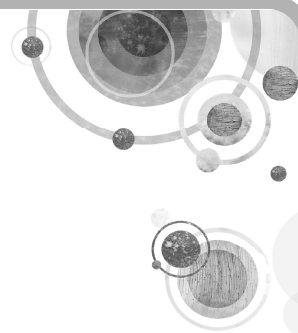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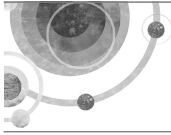
발표2

벼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권 일 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벼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권 일 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I. 학교와 청소년단체의 오래된 공생적 활동과 부침

해방이후 사회적 자본과 자산이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입장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여겼던 인재, 사람은 곧 국가성장의 지름길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지배하였다. 이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 학교이자 교육이라는 말은 곧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할 국민 모두에게 통합된 결집력으로 작용하였고 필요내 용에 대한 공감대로 자리잡았었다.

못먹고, 못입어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고통은 얼마든 감내할 수 있고 또 그러해도 된다는 서로의 마음속에는 전문가의 성장지상주의나 다른 어떠한 특별한 전문용어로 포장하지 않아도 자녀 의 입신양명의 핵심수단이 교육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옹골찬 도전이라 치부하 며 이의 당위성에 합당한 노력을 해왔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의 영역과 지원이 일천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육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영역(私領域)에서 담당하였던 교육은 공공재의 투입을 당연히 여겨 곧 교육입국의 성장지상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서로가 하나의 목소리를 가져 왔다.

이에 대한 성과는 눈부실 정도였다. 투자대비 가시적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 모든 성장의 지향점 이 교육이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 쉽사리 동의를 하게 됨으로써 이를 더욱 공고히 하려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선제적 정책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한 이슈였다.

정작 우리가 겪게 될 사회적 문제나 비용 등의 과다는 계상하지 않은 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 에 걸맞는 사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양성하는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어졌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바로 좋은 상급학교 그리고 우수한 인재가 많이 다니는 상호 비교가 가능한 교육기관의 서열화를 만들었고 이를 맹신하게 된 결과였다.

아마도 우수한 교육기관의 서열화는 비단 우리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많은 국가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해당 교육기관에서 잘 뒷받침해 주고 있는가를 찾아서 이를 알리고 또 올바른 정보하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설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의 경우 서열화, 등급화, 맹목화 등의 기준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것은 아마도 우수한 교육을 받은 유명인재의 사회적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찾아보기 힘든 불만이 심화된 것도 큰 이유라고 보인다¹⁾.

사실 교육적 기준에 대해 아마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면서도 또 불신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자신의 마음은 수십년동안 이루어 온 사회적 가치기준에 스스로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고 이를 벗어나 지는 못한 채 타인의 경우 타협없는 양보만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²⁾.

어쨌든 교육의 역사적 사실과 관계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한 교육의 수혜자는 최소한의 기준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규준을 갖고 살아가도록 의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준으로 정립된 서열화의 공고함을 원하면서도 이를 타파해야 하는 절대적 숙명을 가진 우리의 학문적 역사성에 보완적 기능을 하고자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여러 방편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단체활동의 학교진입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청소년단체활동은 교육이 목표지상의 가치에 두었을 때 한번쯤 청소년 즉 학생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적 역량을 품어보면서 맹목적 가치를 보편적 진리로 순화시키는 방법을 여러 갈래로 가지치기해 주자는 점에서 순수성이 더 크다고 본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단체활동이 갖는 성과나 가치를 차지하더라도 학교내에서 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상호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교육과정의 포함이라는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³⁾.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이 이제는 계륜(鷄肋)의 수준을 넘어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수순에 처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내 청소년활동을 지역대로 그리고 선진국의 사례라는 명목으로 표현하며 내몰리는 그 내막에는 교사의 업무과다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 논의가 더 강조되지만 사실상 그 주체가 되는 청소년이나 학생의 의견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한명의 학생도 끝까지 잘 돌보겠다는 구호는 있으나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누적인원 40만 이상에 달하고 있는 현실,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수년째 안고 있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의 내면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채 무엇이 교육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행정, 성과지향성에 매몰된 모습을 최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다.

더 이상 학교가 과거의 형태가 아님에도 교육의 장은 담당하는 사람이 명확해야 하고 자격만을

1) 오죽하면 정부인재등용의 핵심기준으로 위장전입의 문제가 등용기준으로 적시될 정도로 좋은 학교와 교육서비스를 물려주고자 하는 욕구를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으며 자유롭지 못하기도 하다.

2) 서열화를 강하게 이룬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등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자녀를 보내기 위해 몰두하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역발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견해의 비판은 일반인의 눈에서 본다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3) 교육의 제도적 미 준비라 함은 교사양성과 자격의 부여 없이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그 업무를 교사에게 맡김으로써 오늘날 교사의 과외업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청소년단체활동이 매 우중요한 범주였다고 필수요소였다면 교육행정체계 포함시켜 교원자격양성을 하도록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갖추어야 한다는 구태적 논리를 보편적 교육가치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어쨌든 오늘날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하지 못하겠다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은 현실이고 보면 학교만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보다는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청소년단체활동 역시 교육적 기준을 부합하고자 함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 기준을 갖고 학교와 공생적 협력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냉철한 비판도 해 보아야 한다⁴⁾.

교사가 학교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기득권의 유지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의 청소년단체활동을 제공하는 단체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극적 자기주장과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적 주체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보다는 학생의 자질과 역량은 무시한 채 서열화된 교육에 매몰된 동승자가 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보았고 이를 유능한 교사와 학교로 인정하였던 학부모와 국민의 시각이 끊임없이 교육자의 철학과 가치관을 괴롭혔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역시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되는 학생보다는 현실을 순응하는 학생의 역량을 강조하는 조력자의 입장을 더 선호하지는 않았는가를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의 서열화를 문제시하려는 이단아가 되기 보다는 어떻게 현실을 수용하고 순응하며 제도적 발판에 디딤돌을 잘 만들 것인가에 맹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교육적 기대감과 삶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는 과거와 현실의 기준을 미래의 잣대로 적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올바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의 청소년단체가 학교 안에서 처한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왜 그러한 시각으로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점의 이해를 재논의하면서 출발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혁신과 변화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그 중심에 무엇이 서야 하는지의 관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주도하는 대상이 변화를 선도하도록 함에 있어서 주변부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의 촉진자역할이 충분한지의 적절한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력과 촉진을 위해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해왔던 근거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에서의 요구와 학교교육과정편성에 따른 고도의 형식성을 들 수 있다.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이수근거는 초중등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제를 하고 시간배당기준을 제시한다. 즉 모든 편제는 철저하게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교사 임의에 의하여 설정하거나 제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과정은 또 학생의 성장과 미래사회 인재로서의 가능성을 근거로 하되 현재의 지식을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4)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주요 논제는 학교의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청소년단체가 지향해야 할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근 청소년단체활동에 영향을 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초·중등의 경우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청소년단체활동은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적어도 반드시 해야 할 영역으로 규정한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의 범주를 4가지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에 포함된 청소년단체활동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법적 기반에 근거한 청소년단체활동 지원의 정당성을 들 수 있다. 사실 청소년단체활동을 학교에 투입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왜 특별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까지 청소년단체활동의 행위의 정당성을 보장하고자 노력을 했으며 그러한 위치에 접해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의 범주를 넘어서 보편적이지 않는 부분을 반드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나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하고자 특별히 정해놓은 법을 말한다. 결국 학교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해야 할 공간적 범주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여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해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의 스카우트 육성에 관한 법률(1969),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1),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198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1999)을 제정하여 특별하게도 청소년단체활동을 학교 내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전한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가장 중요한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과 인성적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중심에 따른 지원이다. 청소년기의 특성과 발달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집단적 특성을 살리고 동시에 소속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성인기에 반드시 요청되어지는 내외적 역량의 강화를 실제적 경험으로 이끌어내도록 하는 기회발현의 차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의 공감성이 높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나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교육의 기대치는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여 멀리 내다볼 여력을 상실한 채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난가 염려스럽다.

과거 청소년단체활동은 성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직의 체계적 정비와 교육과정 내에서의 구조화를 이루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청소년과 함께함이 즐거운 이유만으로 존재이유와 가치를 찾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본다. 하지만 나름 교육과의 기대치를 함께 공유하고자 협력적 관계를 이루어 온 청소년단체활동을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논의를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자연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공고하면서 촉발된 2021학년도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가산점 인정종료발표는 청소년단체의 존립에 대한 커다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2019년 2월에 학교업무정상화(청소년단체활동)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단체관련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짧은 글귀는 청소년단체활동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을 절대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되었고 오늘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엄청난 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단체의 학교배제이유가 학생에게 주어지는 가치지향성은 공감하나 어쩔 수 없는 방안과 현실적 문제가 크다면 그나마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나름 대안을 모색할 방안을 찾아보겠지만 이와 상반된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고 하니 매우 충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에서의 변화요구가 얼마나 접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상황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나가라는 청소년단체, 그 이유에 대한 함의

1) 가중되는 대학입시압력과 학부모 요구, 교육역할 바라기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른 2021, 2022대학입시의 개편안 방향을 보면 개편 취지의 내용과 실행 내용에서는 서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

기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향후 반영될 대학입학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도의 주요 인재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하는 의미로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의 추구는 대학입시라는 벽을 만나면 기가 죽어 버린다.

2022년 대입전형구조개편을 보면 4년제 일반대의 수능위주 비율을 19.9%에서 30% 이상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등으로 대별되는 수시모집의 비율이 과다하고 복잡하며 불신이 높다는 점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과정 정상화를 내세운 출세우기 교육이 학부모로부터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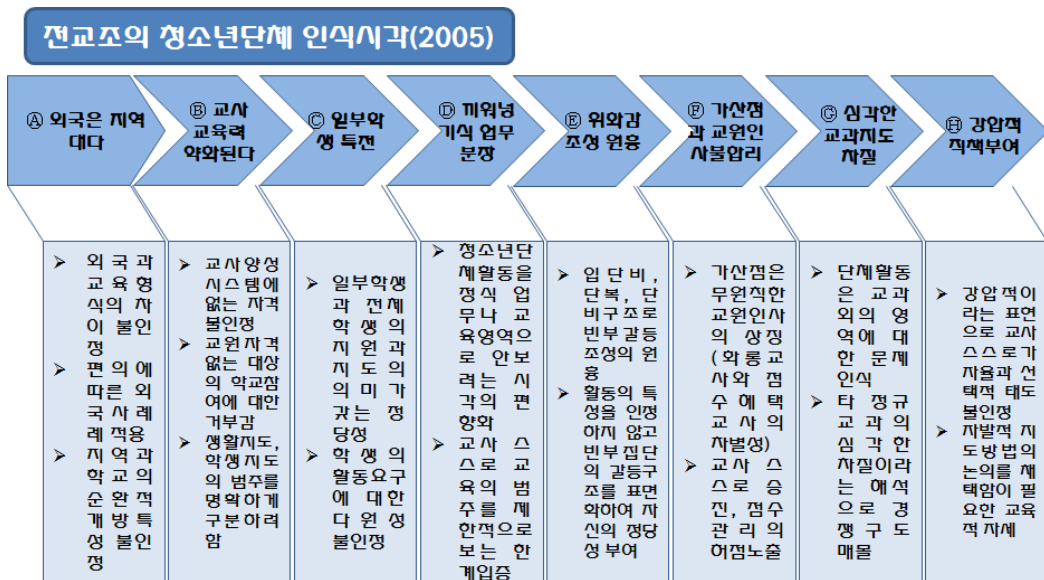
[그림] 교육과정이 대학입시를 만날 때와 단체활동의 한계

이러한 고교교육은 혁신이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포장된 서열화된 하향식 평준화를 당연시하게 되고 누구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으며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편리성과 공정성, 타당성이라는 책임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은연중 힘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철학의 관점은 적어도 미래사회인재, 교육현실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직시해 볼 때 한 목적을 위해 다른 영역을 포기하려는 점이 타당한지 교육정책의 혁신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교사노조의 시각

청소년단체활동이 최근에 행해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전교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요청을 해 왔다. 이 가운데 청소년단체활동을 비판하고 교원의 업무와 이격이 크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교조의 입장에서 엿볼 수 있는 학교의 청소년단체 운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⁵⁾.



[그림] 청소년단체활동을 바라보는 교육적 시각(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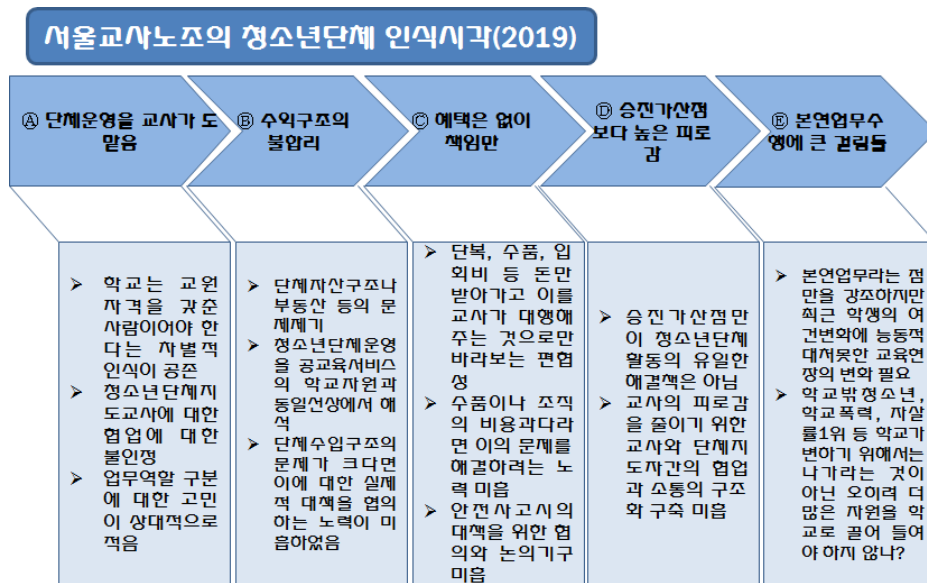
사실 [그림]에서 보는 관점은 그동안 청소년단체활동을 규정하고 배타적으로 여겼던 학교의 보편적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어떠한 부분은 교사 스스로가 교원의 역할과 교직에 대한 정당성을

5) 본 자료의 분석은 2005년 전교조가 학교의 청소년단체운영 이대로는 안된다는 요구내용과 함께 제시된 기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자가 분석해 보았다(<https://blog.naver.com/ebinpa/80018568977>)

말하고자 함에 있어서 오히려 과다하게 해석함으로써 교사의 기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도 한다.

또한 2019년 서울교사노조가 청소년단체 지역대 이관을 목표로 학교업무정상화정책을 환영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서울교사노조의 청소년단체 지역이관 성명서(2019. 2. 18) 내용분석

하지만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본다면 학교에서 바라보는 청소년단체활동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음과 동시에 교사 스스로가 높은 피로도를 기반으로 하는 소진과 역할기여의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학교와 청소년단체가 공유테이블에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 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여운과 아쉬움이 매우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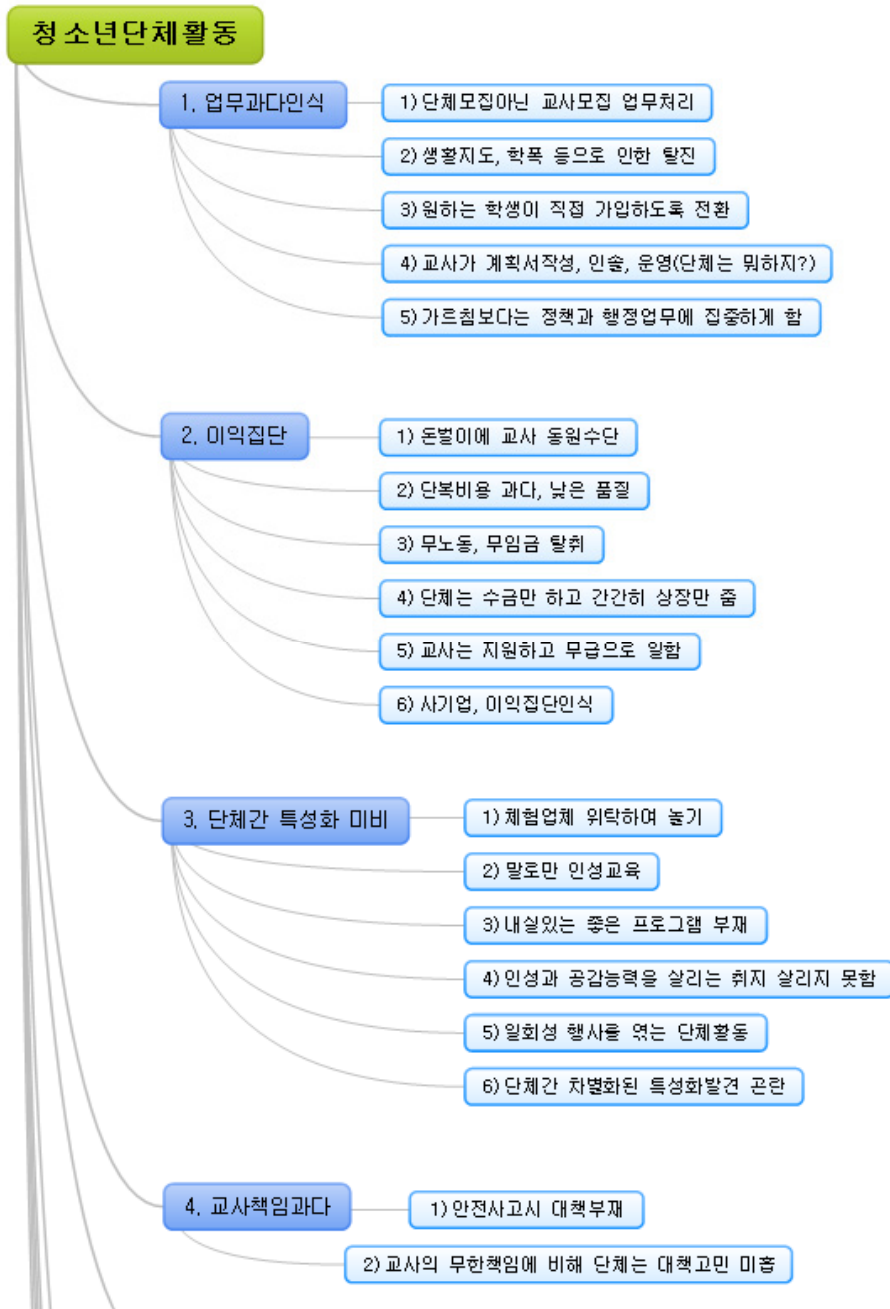
3) 교사가 보는 청소년단체활동의 비판적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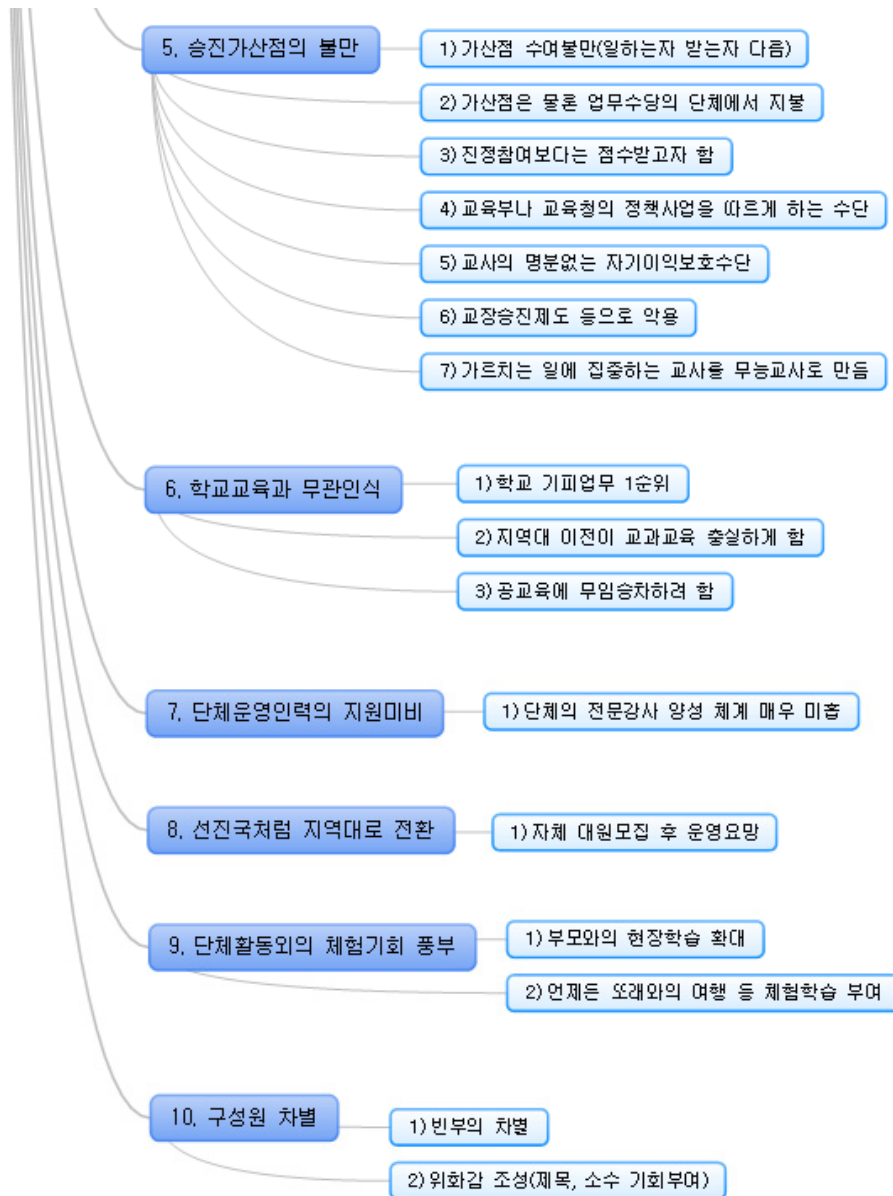
교사들의 관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의 비판적 시각도 교사노조의 관점과 별반 차이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직접 단체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의견은 청소년단체의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관점을 갖게 한다.

따라서 교사가 바라보는 청소년단체활동의 문제점에서 청소년단체 스스로가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 한다.

교사의 청소년단체 부정적 관점은 2018년 11월 청소년단체활동을 학교밖으로 벗어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가산점 문제를 다룬 EBS의 기사내용에 대해서 교사가 불만의 의견과 문제를 제기하였던

덧글을 다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내용분석을 해 보았다. 조금이나마 교사의 청소년단체활동의 문제를 그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요인을 직접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수렴하고 개선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귀담아 듣는 노력을 청소년단체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시의 교사주장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는 내용을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교사들은 청소년단체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정리해 보면 크게 4가지 차원에서 핵심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더 나아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거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나 형식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수정 및 보완을 하면 되지만 교사의 뇌리에 할 필요없는 수준을 넘어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활동의 의미와 연계되지 않고 더 크다면 이는 수십년동안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우군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청소년단체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치명상이라고 본다.

둘째, 현실적 측면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의 고통이 주는 상실감이 크다는 점이다. 업무가 과다하여 이를 즐길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점이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데 청소년단체에서는 이러한 상실감과 업무과다의 고통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보상과 동기유발의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의 배제와 상실의 근원적인 의미는 지난 몇 년간의 안전사고에 기인한 결과 교사가 무한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청소년단체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든지 또는 병행하여 나눔을 고려한다든지의 역할 배분에서 교사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청소년단체를 이익집단으로 보는 시각은 입회비, 단비, 피복비 등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집단으로 단정짓는 고리라는 점에서 청소년단체의 순수성과 상식성을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점이다. 즉 청소년단체는 청렴과 성실이 가장 큰 무기인데 이러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지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또한 청소년단체활동이 비추어지는 시각에서 교내에서 단복을 입고 회비를 내며 상대적 열등감을 조장한다는 일부의 시각을 침소봉대하여 부정적 여론몰이에 일조한다는 점은 상당히 큰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다.

넷째, 위의 약점이 존재하더라도 단체활동의 가치를 보강하는 기대감이 높다면 모든 문제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청소년단체활동이 강점으로 제기되어져야 할 부분마저 취약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못하고 수십년째 되풀이되는 기시감 높은 활동, 오히려 학교외부의 청소년단체활동에 뒤진다는 느낌을 주는 점, 또는 그저 그렇고 그런 활동으로 여겨지는 점에서 뚜렷한 대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학교내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유지하고 지속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이상 분명한 대안과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Ⅲ. 청소년단체! 청소년중심활동을 위한 혁신과 변화의 출구전략

변화해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단지 학교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를 표방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노력만큼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난 몇 년동안 지속되는 혁신과 변화라는 구호만발한 상황에서 오히려 어느 수준이 혁신이고 어느 상황이 변화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 같다.

청소년단체의 입장에서 최적화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에서의 단체활동을 존속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님 학교의 의도대로 지역의 수준에서 새로운 방향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의 기로에 서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적어도 청소년단체활동의 가치와 효과를 적극 수용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수십년동안의 단체활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과를 함께 나누는 기회로 여기고 향후 발전적 대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청소년단체가 협치를 존중하고 협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학교 또는 지역대로서의 변화를 꾀하는 방안이 도래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이제 청소년단체도 나름 새로운 역할 수행을 위한 방향조정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교사나 학교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한 측면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에서 청소년과 학부모의 시각을 함께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선진지향적 활동을 이끌어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청소년단체 스스로가 고민을 강조해야 할 때가 이미 도래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학교내에서의 역할존속과 기능강화를 한 축으로 강화하고 더욱 더 강한 연대를 이루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안의 수렴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단체의 기능강화 및 학교연계 그리고 청소년중심활동을 표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단체 스스로도 고민해야 할 내용을 종합화하여 몇가지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단체의 지도인력 재정비와 전략의 수립

우리의 청소년단체는 성장기의 조직운영에 대한 구조와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학교에서 말하는 너무도 손쉽게 청소년단체는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교육의 구조적 현실상 교사의 업무로 부과하는 한편 청소년단체가 인력이나 조직의 정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은 과거의 성장지향적 틀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몸은 이를 따르지 못한 기형적 모습을 조직운영에서 변화를 주어야 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존속되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일선의 지도인력전문성은 극히 취약한 상태에서도 조직진단을 재대로 해 보거나 전략의 구성을 해 본적도 없다. 따라서 학교단체활동을 지속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지도인력의 확보와 운영 등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정예화하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 청소년단체의 특성화프로그램 구성과 제공

청소년단체활동의 비판적 시각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바로 프로그램의 유사성이다. 또한 전문성을 회구하는 청소년단체여야 하는데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수요가 낮아진 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각 단체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이 유일한 그러면서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미래사회의 역동성을 끌어내는 차원의 전략적 프로그램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을 한다면 아무리 학교에서 단체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발적 동아리의 조직이나 움직임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서 미래 창의, 진로와 직업, 삶의 가치, 대인관계와 사회성, 봉사를 통한 조력과 나눔, 배려 등을 인간으로서 습득이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는가 고민하고 시급히 새로운 프로그램의 창조를 해 주어야 한다.

3) 학교내 청소년단체의 필요와 기능강화를 위한 대상업무와 혁신지원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고려할 때 역시 교사의 업무과다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업무 중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는 단체활동이라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교사가 해야 할 일과 안해도 될 일의 범주를 구분해 놓고 있음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실제적 생활지도, 진로지도, 돌봄지도 등의 변화적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된다면 업무과다가 필수업무로 바뀔 수 있다.

4) 청소년단체활동중 목적성 활동의 영역 확충

청소년단체는 학교내에서 동아리활동으로 하기 어려운 범주나 영역을 확장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분명한 목적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할 수 있는 보편적 활동으로는 학생의 마음을 구애할 수 없다.

청소년단체활동은 봉사활동이어야 하며 자기주도성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이며 동시에 창의적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방하는 활동이 되어져야 한다. 또 청소년단체가 갖는 글로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생각과 활동범위를 넓히되 안전하게 즐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작금의 학교내 문제를 보면 학교폭력의 문제, 대인관계의 부적응 문제, 학습부적응 문제, 또래와 동료의 비인성적 관계고민, 진로문제, 노동과 인권문제 등 직접적이고 현실적 문제의 고민에 처해 있다.

즉 과거처럼 청소년단체가 주장하는 여가, 놀이, 체험, 가치 등의 피상적 의미와 이를 위해 야영, 캠프 등의 행위는 시간낭비나 목적성의 중요도가 매우 낮다. 적어도 청소년단체활동을 하면 학교가 고민하는 인성교육의 범주내에서 보다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무기력, 정서불안, 폭력, 갈등, 평화, 인권 등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활동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것이 청소년단체가 해야 할 활동이라는 정언명령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5) 청소년단체 연합을 통한 활동 홍보체계 구축

학교에서의 배제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청소년단체도 연합의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단체는 공통의 노력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다. 개별 단체가 주장하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해 결국 자증지란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

이번 청소년단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6대 청소년단체만이라도 통합적으로 연대하여 공통비용을 출연하고 연구하며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대적 대안이 필요하다.

개별기관의 움직임으로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개별 학교와 하나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전략도 세우고 신문, 유튜브 등 가용가능한 모든 광고와 각종 대비책을 동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현재보다 더욱 강력한 학교와 청소년단체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구축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배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십수년전부터 논의된 바 있고 또 최근의 교육환경변화를 볼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바는 이러한 예측을 종합적으로 고민한 전략가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있었다 해도 전체의 협력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와 청소년단체가 논의의 주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었다는 점이다.

만약 지역대로 전환된다고 해도 학교의 협력과 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통합된 형태로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청협과 학교내 청소년단체가 중심이 되어 학교와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교사가 진정한 우군이여야 하는데 불신의 벽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의 책임은 학교라기 보다는 청소년단체의 책임이 더 큰 점을 직시해야 한다.

7) 지역내 학부모조직 정비를 위한 참여지원역량 강화

청소년단체활동이 지역대로 전환된다는 점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는 교사를 직접적으로 신뢰하지만 청소년단체지도자의 경우 교사처럼 신뢰감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 또 많은 학부모들의 경우 이미 청소년활동을 과거 청소년수련활동의 극기훈련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어서 부정적 선행학습의 문제를 떨쳐 버리기 어렵다.

극기훈련이 다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휩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이미 경험하였던 각종 사고 등은 더 나쁜 학습효과로 자리잡고 있다. 학부모조직의 정비를 위해서 좋은 점과 특징, 장점 등을 어떻게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것인지를 지역의 혁신교육담당자, 시민교육담당자 등과의 긴밀한 연대를 구축하고 협력을 하는 방안도 발전 전략에 포함시켜보아야 한다.

8) 활동참여교사의 지원과 보상체계 현실화 추구

교사는 청소년단체활동에 대해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채긴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그만큼 활동의 수고에 비해 적절한 보상에 대한 무관심은 단체의 고민이기도 하다.

물론 청소년단체활동이 이익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비추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교사가 생각하는 보상과 보수 등의 대안마련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또 단복, 입단비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비용과다로 어려운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9) 최적의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참여와 중심활동으로 전환

현재 및 앞으로의 청소년활동은 그 방향성이 자기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청소년의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청소년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식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단체활동도 학생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모의국회, 모의토론, 창의 등의 해보면 좋다는 식의 적극성을 얻게 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단체활동의 의사결정에도 학생대표자의 참여를 구체화한다든지 해서 단체활동의 모든 의사결정, 프로그램의 구성 등이 학생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활동임을 지각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단체활동의 영역이 학교를 뛰어넘어서 지역공동체나 글로벌 관점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장해내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

10)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은 안전함의 인식개선

단체활동의 상당부분을 거부하는 중요 요인중의 하나는 바로 안전에 대한 불신과 이에 대한 교사의 전폭적인 책임감이다. 사고발생시 교사가 갖게 되는 업무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안전해야 할 그러면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단체활동의 안전성과 안전의 책임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의 책임소재의 나눔이 필요하다. 교사의 고민을 풀어주지 않은 채 그대로 존속하겠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IV. 마치면서

사실 청소년단체활동이 어떤 점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논하려는 부분보다는 벼랑 끝에 내몰린 단체활동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우려가 더 큰 시점이다. 우리의 청소년단체활동이 변화와 혁신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학교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이다. 변화와 혁신은 상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고자 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클 때나 제시할 수 있는 용어이다. 현재처럼 나가라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변화, 혁신 그리고 발전의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변화와 혁신이 아닌 벼랑끝에서 생존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배수의 진이라는 최후의 대응이 필요하다.

언제나 쉽게 인용되어지는 해외 사례처럼 지역대를 쉽게 말하지만 우리 현실이 처한 교육적 중요성은 청소년활동이 외국의 지역대를 통한 참여와 전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행태이다. 곧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알바 없으며 무조건 여기에서는 안하겠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다. 그렇다면 지역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으로 학생이 나오는 최소한의 기능만이라도 할 준비는 학교가 되어 있는가?

언제나처럼 교육혁신을 주장했던 일각에서 핀란드는 항상 좋은 표징이 되었다. 하지만 남한면적의 3.4배, 인구는 겨우 554만명,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6위로 약 5만불에 가깝다. 이런 현실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상을 심어준 교육학자들의 무분별한 비교가 오히려 교육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잘하고 있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혁신임을 말하고 있다. 주변에 여러 자원에서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실제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핀란드는 2020 교육개혁을 통해서 새롭고 혁신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핀란드 교육부 장관이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철학에서 전개하려는 의지나 의미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성취를 보였지만, 여전히 최선의 교육인지 고민한다”

(Sanni Grahn-Laasonen)

하지만 우리는 작금의 교육환경을 살펴 보자. 교사가 업무과다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진정 청소년들의 욕구와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결국 청소년단체활동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투입시키고 교육의 한 영역으로 과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 과거 수십명의 학생이 교과와 지식에 반짝이던 눈을 집중하였던 시절의 교육을 여전히 추종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학급당 인원이 적어진 현 상황에서 십인 십색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은 명백하다. 아마 대부분의 교사라면 이러한 의미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알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단체도 나름 활성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단체가 요구하는 점을 깊이 숙고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말해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활동이 근간이 되어 온 바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며 지역이관이 필요하다면 급작스런 이관이 아닌, 점진적 이관을 위한 조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이해 달라는 관점이다. 학교를 모태로 한 활동을 해 온 바 이사를 가기 위해서도 최소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한 바 이를 금년부터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자 한다.

둘째, 단체가 지역대나 지역내에서의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서 지역사회 발판 마련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바 학교에서 '장소 확보', 단체행사 등 할때, 현재는 학교에 행사물품(캠프장비 등)의 협조가 필요함을 이해 주었으면 한다.

학부모들도 지금은 과거에 비해 가족과의 여행이 많아져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활동은 필요 없다는 단편적 시각이 많다.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기중심적 표현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의 청소년단체가 그들의 인식을 개선해 주어야 할 몫이기도 하다.

편안한 활동을 제공하기 보다는 새로운 전투의 공간에 내몰려진 극한 상황임을 명심하며 생즉사(生即死 死即生)의 심정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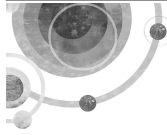
한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구호가 남사스럽지 않도록 하려면 청소년단체의 활동이 떠나는 것을 오히려 붙잡는 자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토론1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NGO활동의 기대효과

안 병 일

(서울시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 회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 청소년NGO활동의 기대효과

안 병 일

(서울시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 회장/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지난 2월 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청소년단체활동)이행계획 안내란 공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2019년부터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한다.”고 각 학교에 통보했다.

청소년단체(청소년준거집단활동)는 일제강점기시대부터 학교교육과 상호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학교는 지식 전달의 장으로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전담해오면서 한국스카우트 연맹은 100여 년 동안, 다른 청소년NGO는 적게는 수십 년 동안 공교육의 핵심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훈육시켜 국가의 대들보로 육성해 왔다.

그러나 작금에 들어 학교업무정상화라는 명분아래 교사의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와 합의사항을 이행시키고자 교육청이 간섭하여 감나라 대추나라는 식의 침탈을 유발하여 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무주공산으로 개최돼야 하는가에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면서 용렬한 글을 써본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불안정과 최첨단 SNS사회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 답장 속 같은 교실의 입시 중압감, 물질주의 팽배 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현상, 고령화 및 저 출산, 높은 실업률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세계 여러 국가는 나라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중대한 사명감에 직면해 있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는 국가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서 건전청소년을 육성키 위해 청소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는 가정교육도 문제지만 학교의 공교육이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자리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연유로 작금에 이르기 까지 지식교육은 사설학원에서, 인성교육은 청소년단체가 전담해 오지 않았는가? 학교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 준다면 청소년단체는 학교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단체가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겨진다.

비약적으로 언급해 보면 학교는 소수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들을 위한 공간 일 뿐 그보다 더 많은 평범한 학생들에겐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고 있는 “공동 대합실”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다.

우리사회가 급변하는 정보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청소년들의 본능을 쉴 틈 없이 유혹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으로선 이러한 유혹을 차단하기엔 너무나 무기력한 “말 뿐인” 교육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여겨진다.

앞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교육환경과 교육철학에 대한 심각한 반성 위에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한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처럼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시장원리와 경제논리에 따라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선 청소년들을 규율과 질서, 협동과 희생, 책임감 등에 충만한 창의적인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길러낼 수 없다.

청소년들에게 경쟁적으로 이기심을 추구하도록 내모는 공교육으로선 계속 폭증하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흡연, 음주 등 청소년 일탈의 문제점을 풀어낼 수가 없다 보여 진다. 이것이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 세계 169개국에서 4천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스카우트운동(한국스카우트연맹)을 비롯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RCY 등 청소년준거집단활동(청소년단체활동)에 참여시켜 참된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낳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청소년을 수용하여 대자연속에서 이뤄내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 주역으로 키워 주는데 청소년준거집단활동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013년도엔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전 세계 169개국에서 5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4년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적인 지원과 장려는 불구하고 마치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듯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 볼 수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할 국내 청소년이 태부족인판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촉시키는 것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대한민국에선 개최할 수 없으니 반납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최소 10,000명 이상의 외국 청소년 대체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전 세계 169개국에서 50,0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분골쇄신 해가며 어렵게 유치해 놓고 대한민국 청소년이 주인이 아닌 외국청소년들이 호스트가 돼야하는 현실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만을 강조하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함께 우정과 연대감 및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교육청은 간과하고 있음으로 인해 청소년단체가 참다운 훈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발전과 공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존속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생각된다.

청소년NGO활동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NGO"는 청소년기에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의 차이를 네 개의 범주인 사회적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관계구조), 민주시민의식 등으로 일반화해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특히, 청소년NGO활동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남성은 경험 있음이 경험 없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경험 없음이 경험 있는 것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행복감 정도의 성별·연령별 평균값을 차이와 t-test 결과를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 보다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이유에 대한 성별·연령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성별의 경우 남녀 모두 원만한 가족관계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만한 인간관계 정도, 직장생활 만족정도, 경제적 생활수준 정도, 기타 국가지역사회 신뢰정도 순으로 동일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 원만한 가족관계 정도와 원만한 사적 인간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NGO활동 유경험자는 청소년NGO활동의 사회생활 영향정도에 성별·연령별 차이와 t-test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NGO활동 유경험자는 청소년NGO활동의 습득내용에 대해서도 성별·연령별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녀모두 다양한 경험, 공동체의식, 다양한 기회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적극적인 가치관 형성, 개인능력 개발, 준법의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범주들을 분석해 보면 첫째,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해 원만한 가족관계와 사적 인간관계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로 인한 행복감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나 지역사회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사회적 신뢰와 관련해 가족 간의 신뢰, 이웃 간의 신뢰와 직접적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 공공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신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신뢰는 보통수준에서 형성됐다.

셋째, 상호 호혜적 규범과 관련해 타인도움에 대한 기대, 타인도움에 대한 경험,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은 보통수준이고, 타인을 도운 경험, 이웃 간 친밀정도, 타인의 입장에 대한 이해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갈등해결은 대부분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관계구조)와 관련해 고민상담 인간관계, 인간관계모임 참여정도, 관심분야 인터넷 접속정도, 지역사회활동 관심정도 모두 보통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째, 민주시민의식과 관련해 선거과정 참여정도, 본인법규 준수의식, 공공이익활동 참여의사, 공공장소쓰레기 수거경험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타인법규 준수의식, 타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의사는 보통수준에서 형성됐다.

청소년NGO는 청소년의 건전육성이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규범적 성격이나 교육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NGO는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씩씩하고 건강하며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학교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사회서 청소년NGO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의 부족과 청소년NGO의 재정적 영세성으로 인한 충분한 시설과 다양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족, 전문적인 지도자 부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여 보다 활성화된 청소년NGO의 활동을 촉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 안병일 교수 프로필

(경력)

- ▷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특별연구원
-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조직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 이사
- ▷ 한국행정학회 국정과제특별위원회 위원
- ▷ 명지대, 아주대, 협성대 외래교수
- ▷ 명지대 연구교수
-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융합학과 겸임교수
- ▷ 서울시청소년육성단체협의회 회장
- ▷ 팍스코리아나연구소 이사
- ▷ 한국청소년NGO학회장
- ▷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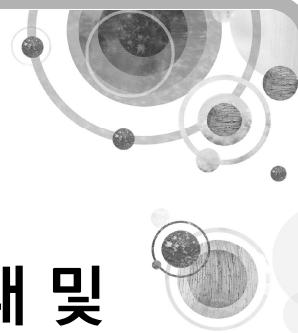
- ▷ 대통령표창(2011)
- ▷ 문화관광부장관표창(2002, 2004)
- ▷ 서울시민상(2014)
- ▷ 대한민국 인물대상(2016)
- ▷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2016)
- ▷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사회공헌부문(2016, 2017)
- ▷ 글로벌 신한국인 대상 사회공헌부문(2017)
- ▷ 자랑스런 대한국민대상 사회공헌부문(2017)
- ▷ 코리아베스트 의정대상(국회외교통일위원장상,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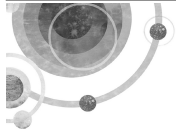
토론2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

김 정 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청소년단체의 현재와 미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정 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

1. 들어가며

김선영 회장님의 발제에 대하여 내용과 활성화 방안 모두에 대체로 공감한다. 학교의 청소년 단체 지도교원의 업무를 지역청소년단체로 이관하는 방안 교원지도비 현실화 방안에도 현재 시점과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현 상황의 문제에 대하여 교육당국에 대한 성토나 지적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몇 가지의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토론자의 생각 고리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왜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가’ 둘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화두에 대하여는 다시 두 가지 방향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교육현장에 불합리해 보이는 이러한 결정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와 우리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정책영역은 반성할 점이 없는가하는 점이다. 다만 교육현장에 대하여 발제자가 이미 전교조 등 교사단체의 요구 등 불합리함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토론자의 생각도 함께하므로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반추해 볼 만한 사항에 보다 중점을 두고 논의 해보고자 한다.

또한 두 번째 화두에 대하여도 현실상황에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와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은 무엇인가로 나누어 살필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역시 발제자의 의견에 중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 토론의 자리가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까지 모두 다루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앞에 제시한 화두들에 대하여 가볍게 접근하고 결국 또 다시 화두를 던지는 정도로 진행될 것임에 양해를 구한다.

2. 왜 이러한 사항이 초래 되었는가

가. 교육계는 왜?

결국 교사들의 업무경감이라는 미명으로 출발하였음과 이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문제의식은 이미

발제자의 지적과 같다. 따라서 핵심은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과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업무가 과연 교육 본연의 일에서 벗어난 것인지에 의문과 그렇지 않다는 비판으로 논의가 흘러가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교육현장의 특징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화두를 나열하고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 학교를 통한 후세에 대한 교육방법의 정책화(국가주의 공교육 전통)는 인류 역사상 150여년 정도의 짧은 실험으로 이미 70년대부터 학교무용론 또는 학교폐기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미국, 홈-스쿨링 지원체계 및 증가)
- 국가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1/6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여하에 따라 연동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국세 20.27% 연동)
- 현대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배움에서 교육=배움+돌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으며 그나마도 돌봄의 영역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교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학교는 학생들의 배움의 장소라는 인식과는 달리 교사들의 직장이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의 장래희망 1위는 교사이며 희망의 이유는 안정된 직장이라는 점을 1순위로 꼽고 있다.
- 학교에서의 배움은 지식과 기술이다. 과연 그런가?
- 1960년대 이후 교육당국 스스로가 국가교육의 책무를 교과교육으로 한정된 것이 아닌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두가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인성, 태도 영역에 해당하는 생활지도, 교과 외 활동 영역에 중심을 두었다.
- 이는 국민적 인식 수준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성장에 대한 독점적인 정책적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에 나열한 화두 하나하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과 증빙은 생략한다. 또한 뒤에 이어질 토론자의 장기적인 대책 방안과 연결될 것이므로 뒤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나. 청소년정책 및 제도적 문제는 없었나?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인정하는 학교 내 청소년단체(승진가산점 부여 인정 단체)는 15개 단체이지만 각 지역연맹별로 분리된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웃연맹을 하나로 보면 13개 단체이다. 이는 학교 내 청소년회원 1,000명 이상인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정의하는 청소년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단체’라는 같은 용어로 정의 되지만 교육부와 여가부의 기준이 다른 이러한 용어적 혼란은 국가청소년육성정책이 태동하던 1988년 청소년육성법을 제정하며 출발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이때 처음 통용된 것은 아니며 1965년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출범은 청소년단체라는 용어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은 각 단체별 독자적인 활동과 목적성이 통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회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조직을 거느린 청소년회원단체의 성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그 활동의 근거는 학교였으며 이후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 1969. 7 28),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정 1981. 4. 13.) 등 개별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법률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관청은 당시 교육부인 문교부였다. 즉 이때까지 청소년단체는 학교 내에 교육적 필요를 바탕으로 한 학생 청소년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였으며 각 단체별 독자적인 활동과 목적성이 통일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회원으로 구성된 청소년 조직을 거느린 청소년회원단체의 성격이었다.

이후 청소년육성정책이 태동하며 상기의 개별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법률을 포함하여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을 통한 정책주무관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고 청소년단체의 개념 또한 확대되어 청소년의 보호, 선도, 육성과 같은 개념 포괄한 조직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청소년단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단체에 대한 의미에 따라 ‘청소년단체’ 정의를 두 가지의 큰 축으로 분류함을 내포한다. 하나는 ‘청소년들에 조직적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인격형성에 직접 도움이 되는 조직체’라는 시각과 ‘청소년을 국가사회의 발전에 참여 봉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려는 목표아래 청소년을 지도하는 단체’라는 것이다. 즉 [청소년에 의한 회원활동 조직체]와 [청소년 지도(선도, 보호, 육성 등을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육성법(1988)은 청소년단체를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무부처에서 인정하는 단체라 정의하여 용어의 모호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청소년단체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 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 하였다.

이에 대해 1991년 수립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단체’의 범주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과거 [청소년단체협의회] 중심의 청소년단체 범주 인식에서 확대된 청소년단체의 범주인식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단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당시의 연구(함병수 외, 1991)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비슷하게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범주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 무분별한 청소년단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다. ③ 규모로 보나 조직운영으로 보더라도 오랜 경험을 토대로 공인될 수 있는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④ [청협]을 중심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사업 및 인적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① [청협] 이외의 청소년단체를 포괄하고 있지 못해서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육성에 저해가 되고 있다. ② [청협]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단체 및 청소년시설이 상대적으로 많다. ③ [청협]은 절차와 행동의 제약이 많고 다소 관료적이며 작은 단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현장활동과 거리가 멀다. ④ [청협]의 많은 단체들이 외향적 행사위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단순히 청소년단체의 범주를 확대하여 정책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단체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처음부터 ‘청소년단체’라는 용어를 유형별로 분화하여 각기 다른 방식의 정책대상으로 하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

과거부터 토론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초기단계였던 1991년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이론적 근거가 된 함병수 외(1991) 유형분류방식 또는 단체의 중심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는 임성택 외(2000)에 유형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청소년단체를 유형화 하여 분류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함병수 외. 청소년단체 육성방안 연구. 1991. 한국청소년개발원.
① [청소년단체]→회원중심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외 발전에 참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아래 회원을 모집 지도하는 민간단체 ② [수련터전법인]→터전중심 일정규모의 청소년 수련터전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지원활동 등의 수련활동을 주관, 실시하는 민간단체

③ [수련거리 전문운영단]→거리중심 수련거리 실시에 요구되는 전문적 지도력을 가진 수련거리 운영주체로 독자적으로 수련활동을 주관하거나 수련활동을 위해 전문적 지도력을 제공하는 “집단조직체” ④ [청소년자생모임]→동아리,씨클 청소년 또래집단같이 자율적으로 형성, 운영되는 모임체로 그들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유하는 집단활동을 통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학교, 직장, 복무처 등에 등록된 자생 씨클
임성택 외.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① 청소년연구개발단체 : 청소년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청소년회원단체 : 특유한 수련거리를 중심으로 이를 선호하는 청소년을 회원으로 하여 주로 수련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③ 청소년시설단체 : 청소년수련터전을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④ 청소년전문단체 : 청소년수련거리에 관한 전문적인 운영기법을 제공하거나 특별한 수련거리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적 측면 외에도 우리 청소년단체들 자신의 문제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 청소년단체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 내지 못했던 측면 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각각 청소년단체 스스로가 내부적 사정에 맞추어 판단하고 있을 것이기에 토론자가 논의 할 내용은 아닐 것이다.

3.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가. 현실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이미 언급하였듯 교육청이 인정하는 학교 내 청소년단체라는 것은 결국 교사의 업무분장에 포함되느냐 여부와 관련 된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승진가산점을 인정하는 단체라 표현되며 학교 내 청소년 회원 1,000명 이상인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승진가산점 인정단체는 지역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흥사단아카데미의 경우 학교 내 청소년회원 1,000명 이상인 인천, 대구, 제주교육청의 경우 포함되어 있으나 서울교육청에서는 비록 일부 학교에 흥사단아카데미 회원 청소년이 존재하고 지도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기준에 미달하여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학교들의 지도교사들은 승진가산점 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스스로

가 흥사단에 뜻을 같이하는 단우(회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활동 역시 교육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창의체험학습 과정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예는 청소년회원 중심 단체들이 학교를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운영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단체들 입장에서 이는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흥사단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인 운영규모와 성인 회원들이 함께하는 회원단체로 청소년 아카데미는 조직운영의 한 영역일 뿐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스카웃이나 아람단과 같이 학교 청소년회원이 중심적인 단체들에서는 발제를 해주신 김선영 선생님과 같은 열정적인 선생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이 오히려 큰 부담일 수 있다. 즉 아무런 개인적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하며 학교 내 청소년단체 지도업무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선생님들이 존재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발제해주신 내용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발제자의 제안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과 재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력의 문제는 학교의 뜻있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다른 방법도 있다. 이는 재원의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재원이 충분하다면 굳이 교사가 아닌 청소년지도사들을 학교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학교 청소년단체들과 창의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영역의 교육과정 업무들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다.

또한 재원의 문제는 청소년들 회비가 중심적인 재원을 차지하는 청소년단체로서는 결국 청소년의 부담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앞에도 언급했듯 비교과영역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무상교육 확대를 주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의 부담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교육부는 명백한 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무익하며 교육적 활동이 아니므로 교내 청소년단체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교사의 업무분장을 제외하는 형태의 사실상 청소년단체 퇴출 정책을 *“학교와 교사들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시원적 역할로부터 ‘소외’되는 위협으로부터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설레는 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라는 식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이 요청된다.

한편 청소년정책을 총괄한다는 여성가족부 역시 한발 물러서 있을 형편은 아니다. 교육부나 여성가족부나 결국 대한민국의 후계세대를 올바르게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정책부서이다.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앞서 언급한 청소년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재원지원의 방법이던 교육부와 협의의 방법이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

나. 장기적 관점의 대처 방안

토론자는 이번 문제가 결코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교육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다. 학교가 부수적인 것들을 버리고 ‘학업성취’, ‘대학입시’라는 교과과정에 충실하겠다는 선언을 ‘지원적 역할’이라 정체모를 표현으로 호도하면 그렇게 따가고 말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과 부와 권력을 연결하고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사라는 직업관 역시 앞서 언급했듯 입직의 이유가 안정된 직장으로 선호되는 현상 속에 처해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자율권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신뢰가 부족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스승보다는 단순히 담당교과과목에만 충실한 직업인으로서의 교직구조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파문혀 버리고 말 것이다.

결국 교육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바뀌길 기다리거나 우리 스스로가 존재가치를 보이며 바꾸어 나가야 한다.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나쁜 대처방안이 될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청소년육성과 교육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토론자가 생각하는 방법은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이며 학교와 차별되는 대안교육의 현장으로서 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 준비하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의 힌트는 홈스쿨링 지원센터, 자기주도활동, PBL, 현상기반학습 같은 교육방법론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선진 각국의 교육패러다임은 단순한 교실교육형식을 탈피하고 있다. 그중 하나만 소개해 본다면 교육 강국으로 유명한 핀란드는 2016년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교과목간 융합을 바탕으로 하며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의 방안을 추구하는 문제중심학습(PBL), 현상기반학습 등을 전면적으로 등장케 하고 있다. 심지어 교과서도, 교실도, 개별적인 자기책상도 없는 학교를 추구하는 혁신적 교육정책을 도입중이다(서울연구원, 2018). 이러한 핀란드 교육의 혁신적 교육개념이 유용한 완결성에 비하여 현재로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청소년현장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 특히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수행되며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학생 회원제 청소년단체들이 충분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와 교육당국이 현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대안적 교육 활동을 선점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성적 성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이며 4차 산업시대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지적 활동 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한 청소년계 내부의 변화와 훈련도 필요하며 지원도 필요하다.

4. 마치며

토론자는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교육당국을 원망할 생각이 없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교육당국자들에 대해 고운 시선을 접고 있었다. 따라서 놀랍지도 않다. 오히려 교육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교육당국이 반갑고 청소년정책영역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과거 다른 토론 자리에서 국가주의 교육을 해체하여야 하며 교육부를 해체하고 지역교육위원회 중심의 자율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영역을 청소년정책의 하위영역으로 편입시켜 청소년들에 대한 공교육을 국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자신의 성장주의 관점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미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OECD 국가평균 꼴찌라는 소식도 듣고 있다. 더하여 청소년들의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느끼게 하며 청소년에게 직접적이며 다양한 위해요소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구조와 상황이 학업이며 학교라는 연구 결과들도 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9-20세기 국가주의 교육구조를 탈피하지 못한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소년의 성장을 교육과 학교로 등치시키는 우리사회의 고정관념도 수정되어야 한다. 학교 밖 아이들은 왜 ‘학교 밖’이라 표현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토론자의 동료 중 한사람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표현을 바꾸어야 한다며 제안한 ‘조기 사회진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소년 활동현장에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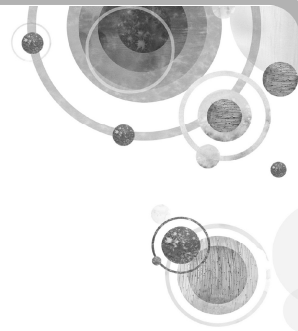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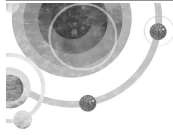
-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413호(2017년 8월 21일)
- 임성택 외. 청소년단체의 운영실태 및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 함병수 외. 청소년단체 육성방안 연구. 1991.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 체육청소년부.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협활동 30년. 199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홍사단. 홍사단운동 70년사. 1982. 홍사단출판부

토론3

벼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에 대한 토론문

김 경 옥
(만들레 대표)





벼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에 대한 토론문

김 경 옥
(민들레 대표)

1. 교육과 청소년 활동

“교육은 다음세대의 성장을 돕는 일”,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보통교육 단계에서 다음세대의 성장의 방향을 ‘홍익인간’으로 잡고 있다. ‘홍익인간’은 말 그대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을 뜻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건강한 시민’을 일컫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한마디로 우리는 ‘전인교육’이라 한다. ‘홍익인간’ ‘건강한 시민’이라는 방향의 교육, 전인교육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교육을 들여다보면 부족함이 많다. 이것들은 진지한 우리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라기보다 그저 학교 건물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말이거나 또는 구호거나 또는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학교에서 홍익인간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엔 역부족이다. 형식적 교육과정과 비형식적 교육과정 모두 이를 받쳐주지 못한다. 그 원인이나 실태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의 진단에서는 물론 이번 포럼의 발제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든든한 보완재 역할을 해온 것이 청소년 활동이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보이 스카웃, 걸 스카웃, 해양소년단 등 걸출한 청소년단체가 그 나름의 노하우로 학교 교육의 든든한 보완재 역할을 해왔고, 이를 수행하는 청소년단체와 학교는 적절한 동행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동행 관계에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2. 청소년 활동은 곧 청소년단체 활동인가?

현재 입시교육 중심의 교육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있다. 특히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면서,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교육 실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혁신교육, 마을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등은 그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다.

무엇보다 학교가 전인 교육 또는 홍익인간 또는 건강한 시민을 키워내는 역할을 혼자서 감당하기

힘드니,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그 일을 해내야 한다는 전향적인 움직임이기도 하다. 혁신교육이나 마을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보인다. 청소년 단체와 연결하지 않고도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펼쳐진 셈이다.

새로운 청소년 활동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의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익히는 그야말로 건강한 시민 교육 활동이기도 하다. 학생이 접근하기 좋은 마을에서, 스스로 마음이 동해 합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일상적으로 그 활동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최근의 청소년 활동은 지금까지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넘어서는 교육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청소년단체 활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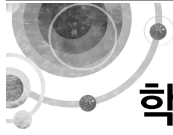
“청소년 당사자의 활동 동기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청소년단체 활동은 그 조건으로 보아 비일상적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캠프 등의 비일상적 활동으로 외연화되는 청소년단체 활동의 활동은 그것을 한계나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특징이나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프로그램 중심이기보다는 관계 중심, 맥락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활동 등으로 재설계 될 때, 낯설고 비일상적이어서 오히려 자극과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토론4

벼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학교교육 혁신의 방향과 청소년단체 활동의 변화

임 유 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기획평가부장)



벼랑끝 청소년단체활동! 방향과 출구전략: 학교교육 혁신의 방향과 청소년단체 활동의 변화

임 유 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서울시교육청의 ‘2019 청소년단체활동 운영 안내’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의 인성교육 및 청소년단체의 이념 구현을 위한 단체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력에 기초한 심신단련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협동 봉사하는 정신과 생활 기능 체득 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자율과 책임 의식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각 청소년단체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활동으로서 그 성격과 목적을 말하고 있다.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의 조직과 운영 방침에서는 **교원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운영하거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동아리 중심의 운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인성교육과 심신단련을 위한 보완적, 선택적 교육활동인 것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운영 방침은 새삼스럽게 타당성을 되짚어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간 학교에서 시행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교사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쌓여왔던 배경을 살펴보면,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 교육의 필수적 교육활동인 것처럼 주로 저경력 교사들에게 과다한 업무로 맡겨져 왔고 가산점 부여에 있어서 불합리한 수혜 사례 등이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개선 요구들을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한 책임회피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제자의 글에서 교사들의 비판적 인식을 상세하게 열거 분석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청소년단체 활동은 교사의 업무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본질적 교육적 차원에서 미흡한 부작용의 요소들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학교교육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넘어야 할 과제가 교사들의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존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이제는 시대적 요구로서 교육혁신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학교에 대해 기대하는 내용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 입시 준비하는 곳, 미래를

준비하는 곳 등의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존재하며, 교사들은 이것을 전달하는데 충실해야 하고, 학생들은 단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만 생각되어 왔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활동도 그러한 교육 패러다임에서 당연시되어 왔다고 본다. 지금까지 청소년단체 활동은 강력한 규율과 제도로 짜여진 전국 단위 연맹 조직 체계 아래, 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 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지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었고 중, 고등학교에 가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것을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 환경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청소년단체 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청소년의 자발성과 지속적인 참여 동기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고, 어른들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규율에 따른 활동이며 학교의 교사들도 이러한 조직 활동에 동원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제 학교교육의 본질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학생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자기 삶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민주시민 의식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바뀌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의 변화뿐 아니라 체험활동의 질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오히려 청소년단체나 시설들의 역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도 새로운 차원에서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초등학생들의 돌봄과 학습을 위한 방과후활동으로서 청소년단체, 시설들이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안전 대책과 함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젝트 활동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단위학교 차원에서 조직해왔던 각종 스카우트 활동을 지역 단위에 거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집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들이 학교의 담당교사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에서 일할 수도 있다. 중, 고등학교에는 고입, 대입 진학을 위한 방편으로서도 청소년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자율동아리 활동, 탐구 프로젝트 등의 소규모 단체 활동의 필요성이 더 활발하게 마련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문을 열고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불러들이는 것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 속으로 교육의 중심을 이동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들의 실질적 지원도 모색되고 있다.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의 활동이 이러한 교육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더 새롭게 확대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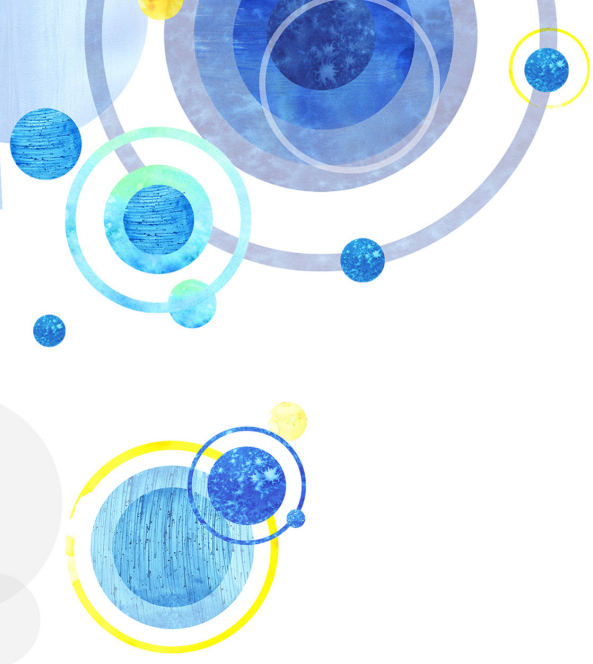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rest of the page is empty, ready for text.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blank notebook or memo pad. It features a series of horizontal grey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grey line runs along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The rest of the page is white and contains no other markings.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at the top right corner of the page.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